

Kodex^{ETF}와 함께 만드는 Viewtiful Week

조수민 책임매니저
Vol.14 2025.01.22

Executive Summary

- 12월 CPI 예상 하회로 고금리/강달러 압력 완화되면서 투자심리 회복
- 관세 관련 추가 행정명령 발표, 24일 BOJ 금정위 등이 달러화 향방에 영향을 미칠 것
- 1월말 빅테크 실적 발표까지 관망세가 짙어질 경우, 미국 증시 매수 기회로 활용할 필요

●●● 이번 주엔 무엇을 볼까

CPI 예상 하회로
고금리/강달러
경계감 완화

뉴욕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 마감했다. CPI가 예상을 하회하면서 시장 금리가 하락하고 달러화 강세가 일부 되돌려진 게 긍정적으로 작용했다. 주요 금융주들의 실적 호조로 실적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강화된 부분도 투자심리를 지지했다. 미국채 2년물과 10년물 금리는 전주비 각각 (-)9.7bp, (-)13.2bp 하락한 4.28%, 4.63%로 마감했다. 달러인덱스(DXY)는 전주대비 (-)0.3p 하락한 109.4p로 마감했다.(2025. 1. 17, Bloomberg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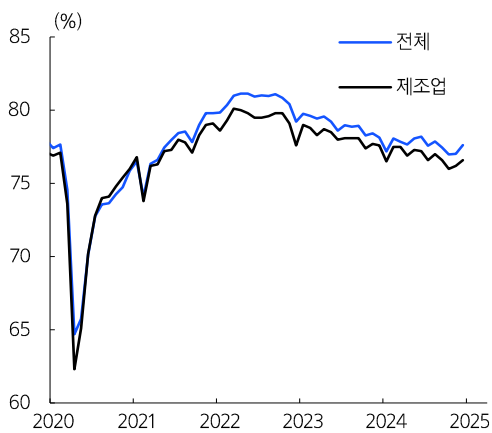
건조한 실물 지표
발표로 4분기 경제
성장률 상향 조정

12월 헤드라인 CPI는 국제유가 상승 여파로 0.4%(MoM) 상승해 예상치와 전월치를 모두 상회했다. 반면, 근원 CPI는 6개월 만에 0.3%에서 0.2%로 둔화되면서 시장에 안도감을 제공했다. 한편, 12월 소매판매는 0.4% 증가에 그치면서 예상치와 전월치를 하회했다. 단, GDP 추정치로 활용되는 핵심 소매판매가 0.7% 증가해 예상을 크게 상회했으며, 12월 산업생산도 0.9% 급등해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[그림 1]. 결과적으로, 실물 지표들이 건조하게 발표되면서[그림 2] 애틀란타 연은 GDP나우 모델은 4분기 경제성장률을 2.72%(1/10)에서 2.99%까지 상향 조정했다.

1월 마지막주 예정된
빅테크 실적 발표까지
트럼프 추가 행정명령
및 BOJ 금정위
확인 필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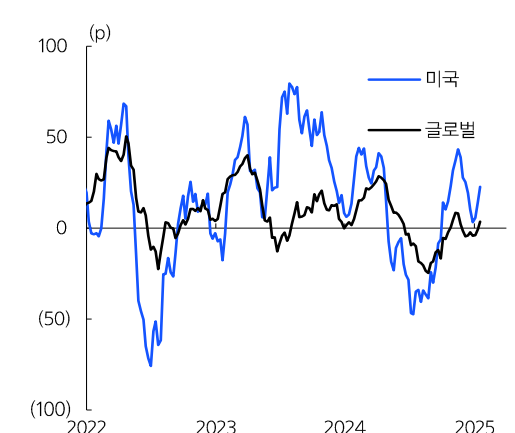
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당일 에너지 및 국경 비상사태를 선포하고, 전기차 의무화 철회, 기후 협정 탈퇴 등 다수의 행정명령을 발표했다. 무역 시스템 점검을 선포한 만큼 추가 행정명령 발표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. 24일에는 BOJ의 금정위가 예정되어 있다. 달러화는 유로화 58%, 엔화 14%, 파운드화 12%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, 유럽 경기 부진으로 유로화와 파운드화는 약세 압력에 노출된 상태다. BOJ가 이번 회의에서 금리 인상을 단행하거나 매파적 포워드 가이드를 제시할 경우 달러화 강세가 제한될 수 있다. 기업단에서는 GE버노바, P&G(1/22) 등이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. 이 밖에도 SK하이닉스, 현대차(1/23) 등 한국 대형주들의 실적 발표도 예정되어 있다.

[그림1] 미국 설비가동률: 제조업 가동률 ↑



※ 자료 : Bloomberg, 삼성자산운용

[그림2] 시티 경기 서프라이즈 지수: 미국 우위



※ 자료 : Bloomberg, 삼성자산운용

●●● 삼성 Kodex View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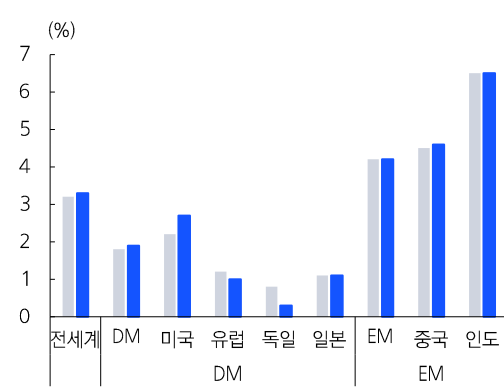
향후 추가 행정명령 발표가 시장 변동성을 키울 수 있음

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식과의 전화 통화를 통해 ‘무역 균형, 펜타닐(중비 마약), 틱톡 등 많은 주제에 대해 논의했다’고 밝히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무역 공세 수위가 예상보다 높지 않을 것이란 기대감이 형성됐다. 다만, 미국의 정치적 상황을 살펴보면 2026년 11월 중간선거가 예정되어 있어, 공약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관측도 존재한다. 트럼프 대통령이 보편적 관세 부과를 고수한다면 이는 시차를 두고 구체화될 공산이 크다. 관세 관련 뉴스 플로우가 유입될 때마다 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 있다.

궁극적으로, 이익 개선세가 유효한 미국 기업에 투자할 필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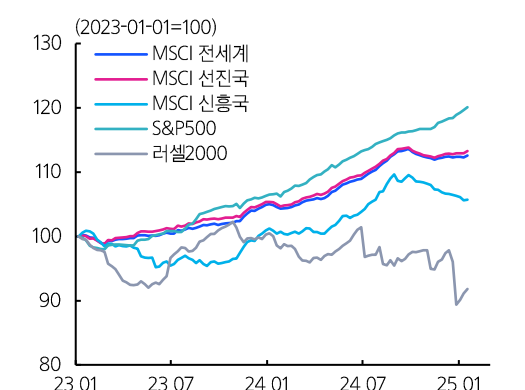
1월 마지막 주에는 메타, 마이크로소프트, 테슬라 등 미국 대형 기술주들이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.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대기하는 과정에서 추가 행정명령 발표가 정책 불확실성을 키운다면, 관망심리가 짙어질 수 있다. 다만, 증시는 결국 이익으로 귀결된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. 지난 17일 IMF는 세계경제전망(WEO)을 통해 미국의 2025년 경제성장률을 기존 2.2%('24년 10월)에서 2.7%('25년 1월)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[그림 3]. 유로존과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한 것과는 대비된다. 더불어, 실적 시즌 돌입과 함께 상향 조정되고 있는 미국 증시의 이익도 긍정적이다[그림 4].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으로 미국 경기 호황은 미국 기업들의 이익 개선으로 이어질 전망이다. 변동성 확대 시, 미국 증시에 대한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.

[그림3] 2025년 주요국 경제성장률



※ 자료 : IMF, 삼성자산운용

[그림4] 주요 증시 12개월 선행 EPS 추이



※ 자료 : Bloomberg, 삼성자산운용

●●● Viewtiful Week를 위한 삼성 Kodex ETF 3

01 Kodex 미국서학개미 (종목코드:473460)

서학개미 보관금액 기준 상위 25개 종목에 모두 투자(한국예탁결제원 기준)

- 미국 빅테크, 실적 서프라이즈 기업 및 산업 트렌드 선도 기업에 투자
- 주요 투자대상 : Tesla, Nvidia, Apple, Microsoft, Alphabet, IonQ, Palantir, MicroStrategy 등
- 합성총보수 : 연 0.4549%, FY2023 기준 증권거래비용 2.8187% 발생, 위험등급: 2등급(높은 위험)

02 Kodex 미국AI전력핵심인프라 (종목코드:487230)

글로벌 AI전력, 인프라 산업 중심에 있는 미국 AI전력인프라 기업에 투자

- AI로 촉발되는 전력 슈퍼사이클의 핵심 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ETF
- 주요 투자 대상 : GE Vernova, Constellation Energy, Arista Networks, Vistra Energy 등
- 총보수 : 연 0.45%(운용 0.419%, AP 0.001%, 신탁 0.02%, 사무 0.01%), 위험등급: 2등급(높은 위험)

03 Kodex 미국배당커버드콜액티브 (종목코드:441640)

미국 우량 배당성장주 투자+ 탄력적 콜옵션 매도 ⇒ 배당과 자산 성장 모두 추구

- 트럼프 수혜 업종으로 꼽히는 금융과 산업재 기업이 포트폴리오 주도 섹터
- 주요 투자대상 : VOO, DIVO, SPY, VISA, Caterpillar, JP Morgan, Microsoft, Honeywell 등
- 합성총보수 : 연 0.3031%, FY2023 기준 증권거래비용 0.1581% 발생, 위험등급: 2등급(높은 위험)

※ 삼성자산운용, 2025년 1월 21일 기준 ※ 증권거래비용, 기타비용 등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※ 상기 내용은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Compliance Notice

- 본 자료와 관련한 저작권은 삼성자산운용에 있으며,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본 자료를 복제 및 배포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.
- 본 자료는 참고 자료로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각종 자료와 통계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된 것이나 본 자료의 내용이 향후 결과에 대한 보증이 될 수 없으며, 본 자료를 본래의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했을 때 삼성자산운용은 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- 본 자료에서 소개하는 투자방법은 개별 투자자들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지 않은 일반적인 내용으로써, 본 자료를 참고한 일체의 투자행위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투자자의 결정에 의하여야 하며, 당사는 투자자의 판단과 결정, 그 결과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- 외화로 표시되는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환율변동 시 자산 가치가 변동되거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- 본 자료를 삼성자산운용 이외의 자로부터 입수하였을 경우, 자료 무단 제공 및 이용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해당 제공자 및 이용자에게 있습니다.
- 집합투자증권을 취득 전 투자대상, 보수, 수수료 및 환매방법 등에 관하여 (간이)투자설명서 및 집합투자규약을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.
- 집합투자증권은 자산가격 및 환율변동, 신용등급 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(0~100%)이 발생할 수 있으며,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.
- 금융상품판매업자는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,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기 바랍니다.
- 연금 외 수령시 세액공제 받는 납입원금 및 수익에 대한 기타소득세(16.5%)가 부과되며, 연금저축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이익금 분배 방식은 투자 결과에 따라 월지급액이 변동될 수 있으며, 이익금을 초과하여 분배하는 경우 투자 원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.
-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.

이 자료의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 있으며,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, 배포, 전송, 변형될 수 없습니다.